

부정문을 가려잡는 필수 부사의 통사적 특성

한 길

강원대학교 교수, 국어학 전공

hankil@kangwon.ac.kr

- I. 머리말
- II. 의존용언 서술어 보충어로서의 필수 부사
- III. 문장 의미 유지로서의 필수 부사
- IV. 맺음말

I. 머리말

문장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사와 그렇지 않은 부사가 있다.¹⁾ 전자를 문장 구성 필수 부사라 하고 후자를 문장 구성 수의 부사라 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부정문을 가려잡되, 문장 구성 필수 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꼼짝’²⁾, ‘꼼짝달짝’, ‘얼씬’, ‘옴짝’, ‘옴짝달짝’, ‘여간’, ‘그렇게’, ‘이만저만’을 들고, 이들 부사의 통사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아주’나 ‘잘’은 문장 구성 수의 부사로, 문장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다만 수식어로서 쓰일 뿐이고 삭제되더라도 문장 구성의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ㄱ. 날씨가 **아주** 덥다.

ㄴ. 철수가 공부를 **잘** 한다.

(1)에서 부사 ‘아주’와 ‘잘’은 삭제되더라도 문장의 적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식받는 용언에 의미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잘’은 동사를 수식하지만, 이는 이들 부사만의 특성은 아니다. 따라서 ‘아주’와 ‘잘’은 문장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문장 구성 수의 부사에 해당한다.

‘얼씬’과 ‘옴짝’은 ‘아주’나 ‘잘’과는 달리 문장 구성 필수 부사로, 문장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2) ㄱ. 개 한 마리도 **얼씬** **않**는구나.

ㄴ. 잠시만 여기서 **옴짝** **말**고 있어라.

(2)에서 부사 ‘얼씬’과 ‘옴짝’은 부정문을 가려잡으며, 삭제되면 (3)과

1) 대다수의 부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수 요소가 아니다. 극히 일부 부사에 국한하여 문장 구성에 필수 요소로 작용한다. 문장 구성의 필수 부사에 관해서는 한길의 논문 「정도부사 ‘훨씬’, ‘가장’, ‘더/덜’의 용법」(『인문과학연구』 제35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184-205쪽)과 「보충어를 요구하는 통사 부사의 용법」(『인문과학연구』 제39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224-249쪽) 참조.

2) ‘꼼짝’은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는 부사로 올라 있고 『연세한국어사전』에는 명사로 올라 있어 차이를 보이지만, 이 글에서는 ‘꼼짝’의 용법으로 보아 부사로 보기로 한다.

같이 부적격한 문장이 된다.

- (3) ㄱ. *개 한 마리도 않는구나.
- ㄴ. *잠시만 여기서 말고 있어라.

의존용언 자체만으로는 문장의 서술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3)이 부적격한 문장이 되었다. (3)에 부사 ‘얼씬’과 ‘음썩’이 수식어로 쓰이게 되면 의존용언과 통사적 구성을 이루어 (2)와 같이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게 한다. 따라서 (2)에서 ‘얼씬’과 ‘음썩’은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수 요소로 작용한다.

‘여간’과 ‘이만저만’도 부정문을 가려잡으며, 문장 구성 필수 부사로, 문장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 (4) ㄱ. 꽃이 여간 탐스럽지 않다.
- ㄴ. 요즘 금이 이만저만 비싸지 않다.

(4)에서 부사 ‘여간’과 ‘이만저만’은 부정문을 가려잡으며, 삭제되면 부적격한 문장이 되지는 않지만 의미상 크게 달라진다. 곧 (4)는 형식상으로는 부정문이고 내용상으로는 강한 긍정을 나타내지만, ‘여간’과 ‘이만저만’이 삭제되면 내용상으로도 부정을 나타내어 삭제 전과 후에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4)에서 이들 부사는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부정문을 가려잡는 문장 구성 필수 부사로, 의존용언과 통사적 구성을 이루어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게 하는 부사들과 문장 의미 유지로서의 필수 부사들을 선정하고, 이들 부사가 어떤 통사적 특성을 보이는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의와 관련된 연구로는 부사가 가지는 통사적 기능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언급한 김택구(1984)를 비롯하여, 서상규(1984), 손남익(1995·1998·1999), 임유중(1999), 서정수(2005) 등이 있다. 통사 부사란 용어를 정립하고 이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로는 한길(2012·2013·2014·2015a·2015b)을 들 수 있다.

II. 의존용언 서술어 보충어로서의 필수 부사

우리말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서술어가 가장 기본적인 문장 성분으로, 서술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이끌리는 성분들과 통사적 구성을 이루어 문장이 이루어진다. 서술어는 주로 용언으로 구성되지만, 자립 서술기능은 본용언이 담당하며, 의존용언은 서술기능이 부족하여 의존용언 단독으로는 서술어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존용언 중에 부정의 '않다', '못하다', '말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서술어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체로 본용언 뒤에 놓여 본용언과 함께 서술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본용언이 놓이지 않고 극히 일부 부사가 선행하여 서술기능을 보완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³⁾

- (5) ㄱ. *철수가 방안에서 않는다.
- ㄴ. *철수가 이곳에 못한다.
- ㄷ. *이곳에서 말라.

(5)와 같이 의존용언만 서술어 자리에 놓이면 부적격한 문장이 된다. 의존용언 앞에 본용언이 놓이면 서술기능을 수행하여 적격한 문장이 된다. (5)에서 의존용언 앞에 본용언을 상징해 넣으면 (6)과 같이 적격한 문장이 된다.

- (6) ㄱ. 철수가 방 안에서 나오지/움직이지/ ... 않는다.
- ㄴ. 철수가 이곳에 오지/머무르지/ ... 못한다.
- ㄷ. 이곳에서 뛰지/떠들지/ ... 마라.

의존용언은 독자적으로 온전한 서술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본용언이 놓여야 함은 자명하다. 의존용언 앞에는 이 밖에도 극히 일부 부사가 수식어로 놓이면 (7)과 같이 적격한 문장이 된다.

3) 명사 중에서도 부정의 의존용언과 통사적 구성을 이루어 서술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다'가 결합 가능한 명사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며,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그 정도의 문제는 아랑곳 않는다.
 ㄴ. 이곳에 대해서는 열려 마라.
 ㄷ. 그 문제에는 더 이상 언급 않겠다.

- (7) ㄱ. 철수가 방안에서 **꼼짝 않는다**.
- ㄴ. 철수가 이곳에 **얼씬 못한다**.
- ㄷ. 이곳에서 **움짱 마라**.

(7)에서 ‘꼼짝’, ‘얼씬’, ‘움짱’이 수식어로 쓰였지만, 이들 부사가 삭제되면 부적격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들 부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보충어에 해당한다.⁴⁾ 이들 부사가 수식어로 사용되지 않은 (5)가 부적격한 문장이 된 것을 통해 이들 부사가 필수적 보충어임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부사에는 이 밖에 ‘꼼짝달짝’, ‘움짱달짝’ 등이 더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 부사가 어떤 통사적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꼼짝⁵⁾

부사들이 용언이나 다른 부사를 주로 꾸미는 데 비하여 ‘매우 둔하고 작게 몸을 움직이는 꼴’을 뜻하는 ‘꼼짝’은 본용언을 수식하지 않고 부정의 의존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를 수식하는 특이성을 보인다.

- (8) ㄱ.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꼼짝 않는다**.
- ㄴ. 할아버지께서는 몇 년째 저렇게 **꼼짝 못하신다**.
- ㄷ.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8)은 문장 구성에서 특이한 점을 보인다. 의존용언은 그 자체만으로는 서술기능이 부족하여 본용언을 앞세워 서술어를 이루지만, (8)에서는 본용언 없이 의존용언만으로 서술어를 구성하는 특이성을 보인다. (8)에서 ‘꼼짝’이 삭제되면 의존용언만으로는 서술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9)와 같이 부적격한 문장이 된다.

4) 대다수의 부사는 부가어에 해당하지만, 이들 부사는 주성분으로서 문장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보충어에 해당한다. 보충어와 부가어에 대한 논의는 남기심의 『현대국어 통사론』(태학사, 2001, 49쪽) 참조.

5) ‘꼼짝’보다 센말로 ‘꿈쩍’이 있으며 여린말로 ‘꼼작’이 있다. 이들의 용법은 대체로 거의 같다. 여기서는 ‘꼼짝’을 대표로 선정하였다.

- (9) ㄱ.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않는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몇 년째 저렇게 못하신다.
 ㄷ. *여기서 말고 기다려.

(9)가 적격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본용언 어간+-지’가 들어가야만 한다. (9)에 이를 보완하면 적격한 문장이 된다.

- (10) ㄱ.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몇 년째 저렇게 움직이지 못하신다.
 ㄷ.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8)은 표면상으로는 ‘본용언 어간+-지’ 자리에 부사 ‘꼼짝’이 들어가 적격한 문장이 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꼼짝하+-지’가 들어갔던 것에서 ‘-하지’가 생략되어 구성된 문장으로 보인다. (8)의 ‘꼼짝’ 뒤에 ‘-하지’를 보완하더라도 (11)과 같이 의미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11)에서 ‘-하지’가 생략되어 (8)이 된 것이 확실하다.⁶⁾

- (11) ㄱ.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는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몇 년째 저렇게 꼼짝하지 못하신다.
 ㄷ.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

‘꼼짝’은 ‘않다’, ‘못하다’, ‘말다’ 등 부정의 의존용언만 가려잡아 통사적 구성을 이루어 서술기능을 보완한다. 부정어인 ‘아니다’, ‘없다’, ‘모르다’ 등은 본용언으로 가려잡지 않는다.

‘꼼짝’ 뒤에는 ‘도’, ‘을’ 등 극히 일부 조사가 결합되어 쓰일 수 있다. ‘을’이 결합되더라도 ‘꼼짝을’이 목적어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강조의 뜻을 더하는 ‘도’의 결합과 마찬가지로 단지 ‘꼼짝’을 강조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6) 내면적으로 ‘꼼짝’이 ‘꼼짝하다’에서 도출되더라도 ‘꼼짝’은 부사에 속한다. 사전류에서도 ‘꼼짝’을 부사로 처리하였다.

7) ‘없다’와는 통사적 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결합과정을 거쳐 ‘꼼짝없다’란 합성형용사가 만들어진다.

- (12) ㄱ. 그녀는 한 시간 동안 꼼짝도/을 않네.⁸⁾
 ㄴ. 철수는 다리가 아파서 꼼짝도/을 못한다.
 ㄷ. 이곳에서 꼼짝도/을 마라.

‘꼼짝’은 문장 안에서 놓이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다른 위치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부정의 의존용언으로 이루어진 서술어 앞에 놓여 긴밀 구성을 이루며 그 사이에 다른 문장성분이 끼어들지 못한다.

부사 ‘꼼짝’에 파생접미사 ‘-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동사 ‘꼼짝하다’도 (11)에서와 같이 주로 부정문만 가려잡는다. ‘꼼짝’에 부정어 ‘없다’가 결합하여 형태론적 구성을 이루어 부정 형용사 ‘꼼짝없다’가 만들어지며, ‘꼼짝없-’에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파생부사 ‘꼼짝없이’가 만들어진다.

부사 ‘꼼짝’은 문장 구성에서 생략될 수 없는 필수 요소로서 뒤에 놓이는 부정의 의존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와 긴밀 구성을 이루어 서술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존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만으로는 자립 서술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꼼짝’과 통사적 구성을 이루면서 자립 서술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꼼짝달싹⁹⁾

‘꼼짝’에 ‘가벼운 물건이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는 꼴’을 뜻하는 ‘달싹’이 결합하여 합성부사 ‘꼼짝달싹’이 만들어진다. ‘꼼짝달싹’도 ‘꼼짝’과 마찬가지로 부정의 의존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를 수식하는 특이성을 보인다.

- (13) ㄱ. 그는 하루 종일 꼼짝달싹 않는다.
 ㄴ. 애가 둘이나 달려 아내가 꼼짝달싹 못한다.
 ㄷ. 여기서 한 발자국도 꼼짝달싹 말아라.

8) 『연세한국어사전』에는 ‘꼼짝’에 ‘을’과 ‘도’가 결합되어 쓰이는 점에 착안하여 ‘꼼짝’을 명사로 다룬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사에도 ‘을’과 ‘도’가 결합되어 쓰이는 일이 있다.

여기는 일선을/도 마라.

9) 『연세한국어사전』에 ‘꼼짝’은 명사로 올라 있지만 ‘꼼짝달싹’은 부사로 올라 있다.

‘꼼짝’은 부정문만 가려잡고 부정의 의존용언 ‘없다’, ‘못하다’, ‘말다’를 수식하는 특이성을 보이지만, ‘달짝’은 긍정문이나 부정문을 가리지 않으며 의존용언만 수식하는 특이성도 없다. ‘꼼짝’과 ‘달짝’이 결합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합성부사 ‘꼼짝달짝’은 용법상으로 ‘달짝’의 기능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꼼짝’의 기능을 계승하게 된다. 따라서 ‘꼼짝달짝’은 ‘꼼짝’과 쓰임이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꼼짝’은 부정어 ‘없다’와 결합하여 ‘꼼짝없다’가 만들어지지만 ‘꼼짝달짝’에는 ‘없다’가 결합될 수 없어 ‘꼼짝달짝없다’란 합성형용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달짝’에는 ‘없다’가 결합될 수 없기 때문인 듯하다. 곧 ‘꼼짝달짝’에 ‘없다’가 결합되지 못하는 것은 ‘달짝’의 기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꼼짝달짝’도 문장 구성에서 생략될 수 없는 필수 요소로서 뒤에 놓이는 부정의 의존용언 ‘없다’, ‘못하다’, ‘말다’와 긴밀 구성을 이루어 서술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존용언 ‘없다’, ‘못하다’, ‘말다’만으로는 자립 서술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꼼짝달짝’과 통사적 구성을 이루면서 자립 서술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3. 얼썌

부사들이 용언이나 다른 부사를 주로 꾸미는 데 비하여 ‘눈앞에 잠깐씩 나타나는 꼴을 뜻하는 ‘얼썌’은 본용언을 수식하지 않고 부정의 의존용언 ‘없다’, ‘못하다’, ‘말다’를 수식하는 특이성을 보인다.

- (14) ㄱ. 철수가 오늘은 하루 종일 **얼썌** **않**네.
- ㄴ. 이곳에는 사람들이 **얼썌** **못**한다.
- ㄷ. 이곳에 다시는 **얼썌** **마**라.

(14)는 문장 구성에서 특이성을 보인다. 의존용언은 그 자체만으로는 서술기능이 부족하여 본용언을 앞세워 서술어를 이루지만 (14)에서는 본용언이 없이 의존용언만으로 서술어를 구성하는 특이성을 보인다. (14)에서 ‘얼썌’이 삭제되면 의존용언만으로는 서술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5)와 같이 부적격한 문장이 된다.

- (15) ㄱ. *철수가 오늘은 하루 종일 **않**네.
 ㄴ. *이곳에는 사람들이 **못**한다.
 ㄷ. *이곳에 다시는 **마**라.

(15)가 적격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본용언 어간+-지’가 의존용언 앞에 놓여야만 한다. (15)에 이를 보완하면 (16)과 같이 적격한 문장이 된다.

- (16) ㄱ. 철수가 오늘은 하루 종일 **웁직이지** **않**네.
 ㄴ. 이곳에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ㄷ. 이곳에 다시는 **오지** **마**라.

(14)는 표면상으로는 ‘본용언 어간+-지’ 자리에 부사 ‘일썌’이 들어가 적격한 문장이 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일썌하+-지’가 들어갔던 것에서 ‘하지’가 생략되어 구성된 문장으로 보인다. (14)의 ‘일썌’ 뒤에 ‘하지’를 보완하더라도 (17)과 같이 의미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17)에서 ‘하지’가 생략되어 (14)가 된 것이 확실하다.

- (17) ㄱ. 철수가 오늘은 하루 종일 **일썌하지** **않**네.
 ㄴ. 이곳에는 사람들이 **일썌하지** **못**한다.
 ㄷ. 이곳에 다시는 **일썌하지** **마**라.

부사 ‘일썌’에 파생접미사 ‘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동사 ‘일썌하다’도 (17)에서와 같이 부정문에서만 쓰인다. ‘일썌하다’에서 ‘일썌’과 ‘하다’ 사이에 조사 ‘도’나 ‘을’이 끼어들면 (18)과 같이 통사적 구성으로 바뀌면서 ‘일썌’은 부사에 속하게 된다.

- (18) ㄱ. 철수가 오늘은 하루 종일 **일썌도/을** **하지** **않**네.
 ㄴ. 이곳에는 사람들이 **일썌도/을** **하지** **못**한다.
 ㄷ. 이곳에 다시는 **일썌도/을** **하지** **마**라.

(18)에서 ‘하지’가 삭제되면 (19)와 같이 의존용언만 서술어가 되는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의존용언만으로는 서술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썌’과 통사적 구성을 이루어 서술기능을 보완하게 된다. 그러나 내면적

으로는 (19)는 (18)에서 본용언 ‘하지’가 생략되어 이루어진 문장이다.

(19) ㄱ. 철수가 오늘은 하루 종일 얼씬도/을 않네.

ㄴ. 이곳에는 사람들이 얼씬도/을 못한다.

ㄷ. 이곳에 다시는 얼씬도/을 마라.

이와 같이 ‘얼씬’ 뒤에는 ‘도’, ‘을’ 등 극히 일부 조사가 결합되어 쓰일 수 있다. ‘을’이 결합되더라도 ‘얼씬을’이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강조의 뜻을 더하는 ‘도’의 결합과 마찬가지로 단지 ‘얼씬’을 강조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얼씬’은 ‘않다’, ‘못하다’, ‘말다’ 등 부정의 의존용언만 가려잡아 통사적 구성을 이루어 서술기능을 보완한다. 본용언에 해당하는 부정어인 ‘아니다’, ‘없다’, ‘모르다’ 등은 가려잡지 않는다.

‘얼씬’은 문장 안에서 놓이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다른 위치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부정의 의존용언으로 이루어진 서술어 앞에 놓여 긴밀 구성을 이루며, 그 사이에 다른 문장성분이 끼어들지 못한다.

부사 ‘얼씬’은 문장 구성에서 생략될 수 없는 필수 요소로서 뒤에 놓이는 부정의 의존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와 긴밀 구성을 이루어 서술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존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만으로는 자립 서술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얼씬’과 통사적 구성을 이루면서 자립 서술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4. 움짍

‘움죽/움죽/움짍/움죽/움쩍/움죽’은 ‘몸의 한 부분을 조금 움츠리거나 펴거나 하며 움직이는 꼴’의 뜻을 지닌 ‘움죽’을 밑말로 하고, 여기에 내적 파생법에 따라 자음이나 모음을 교체하여 파생된 부사들이다. 이들은 ‘움죽’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세기를 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같은 용법으로 쓰인다. ‘움죽/움죽/움짍/움죽/움쩍/움죽’은 모두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사로, 이 중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움짍’을 대표형으로 선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움짍’은 단순 부정문이나 능력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정법 제약 통사 부사에 해당한다. ‘움짍’은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도 수식어로 쓰일 수

있어 ‘-지 말-’을 가려잡는다.

- (20) ㄱ. 바위가 옴짝도 하지 않는다.
- ㄴ. 아이 때문에 옴짝도 하지 못한다.
- ㄷ. 이곳에서 옴짝도 하지 말아요.

(20)에서 ‘옴짝’에 ‘도’가 덧붙지 않으면 ‘하다’와 결합하여 ‘옴짝하다’란 동사로 쓰이게 된다. 따라서 (20)은 (21)과 같이 ‘옴짝하다’에서 ‘옴짝’과 ‘하다’ 사이에 ‘도’가 끼어들면서 통사적 구조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 (21) ㄱ. 바위가 옴짝하지 않는다.
- ㄴ. 아이 때문에 옴짝하지 못한다.
- ㄷ. 이곳에서 옴짝하지 말아요.

‘옴짝’이 독자적으로 부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22)와 같이 주로 뒤에 ‘않다’, ‘못하다’, ‘말다’ 등 의존용언으로 이루어진 서술어가 놓이는 문장에 서이다.

- (22) ㄱ. 바위가 옴짝 않는다.
- ㄴ. 아이 때문에 옴짝 못한다.
- ㄷ. 이곳에서 옴짝 말아요.

(22)의 ‘옴짝’은 (21)의 ‘옴짝하지’에서 ‘-하지’가 줄어들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¹⁰⁾ 왜냐하면 (22)에서는 본용언이 없이 의존용언만 서술어로 쓰였고, 의존용언은 자립성이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서술어가 될 수 없으며, 본용언을 앞세워야 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22)가 표면상으로는 의존용언만 서술어로 쓰였더라도 부적격한 문장으로 볼 수는 없지만¹¹⁾, 내면적으로는 (21)에서 ‘-하지’가 삭제되어 생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곧 (22)는 (21)과 의미가 같기 때문에 (21)이 (22)의 내면 구조에 해당한다.

10) 동사 ‘옴짝하다’도 부정문에서만 쓰이는 특성을 보인다.

11) ‘꼼짝’도 ‘옴짝’과 마찬가지로 의존용언만 서술어로 쓰인다.

부사는 일반적으로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에 해당하지 않지만, (22)에서 부사 ‘옴짝’은 필수 요소에 해당한다. ‘옴짝’이 삭제되면 (23)과 같이 부적격한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 (23) 가. *바위가 **않**는다.
- 나. *아이 때문에 **못**한다.
- 다. *이곳에서 **말**아요.

이와 같이 ‘옴짝’은 ‘않다’, ‘못하다’, ‘말다’ 등 의존용언이 서술어로 쓰인 특수한 문장에서만 수식어로 쓰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옴짝하지’였던 것에서 ‘하지가 생략되어 표면적으로 부사의 모습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2)에서는 본용언이 없이 의존용언만 서술어로 쓰이고, 의존용언은 자립성이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서술어가 될 수 없으며, 본용언을 앞세워야 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옴짝’은 문장 안에서 놓이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다른 위치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부정의 의존용언으로 이루어진 서술어 앞에 놓여 긴밀 구성을 이루며 그 사이에 다른 문장성분이 끼어들지 못한다. ‘옴짝’ 뒤에는 보조사 ‘도’만이 아니라 ‘알’도 놓일 수 있으며, 이들 조사는 ‘옴짝’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부사 ‘옴짝’은 문장 구성에서 생략될 수 없는 필수 요소로서 뒤에 놓이는 부정의 의존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와 긴밀 구성을 이루어 서술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존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만으로는 자립 서술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옴짝’과 통사적 구성을 이루면서 자립 서술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 옴짝달싹

‘옴짝달싹/옴쩍달싹/옴쩍들쩍/옴쪽달싹’은 ‘몸을 아주 조금 움직이는 꼴’의 뜻을 지닌 ‘옴짝달싹’을 밑말로 하고, 여기에 내적 파생법에 따라 모음을 교체하여 파생된 부사들이다. ‘옴짝달싹’은 부사 ‘옴짝’과 ‘달싹’이 결합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합성부사에 해당한다. 이들은 ‘옴짝달싹’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세기를 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같은 용법으로 쓰인다. ‘옴짝달싹/옴쩍달싹/옴쩍들쩍/옴쪽달싹’은 모두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사들로, 이 중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음썩달썩’을 대표형으로 선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음썩달썩’은 ‘음썩’과 마찬가지로 단순 부정문이나 능력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정법 제약 통사 부사에 해당한다. ‘음썩달썩’은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도 수식어로 쓰일 수 있어 ‘-지 말’을 가려잡는다.

- (24) ㄱ. 그는 공부하느라 음썩달썩도 하지 않는다.
- ㄴ. 기가 질려서 몸을 음썩달썩도 하지 못한다.
- ㄷ. 여기서 음썩달썩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24)에서 ‘음썩달썩’에 ‘도’가 덧붙지 않으면 ‘하다’와 결합하여 ‘음썩달썩하다’란 동사로 쓰이게 된다. 따라서 (24)는 (25)와 같이 ‘음썩달썩하다’에서 ‘음썩달썩’과 ‘하다’ 사이에 ‘도’가 끼어들면서 통사적 구조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 (25) ㄱ. 그는 공부하느라 음썩달썩하지 않는다.
- ㄴ. 기가 질려서 몸을 음썩달썩하지 못한다.
- ㄷ. 여기서 음썩달썩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음썩달썩’이 ‘도’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부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26)과 같이 뒤에 ‘않다’, ‘못하다’, ‘말다’ 등 의존용언으로 이루어진 서술어가 놓이는 문장에서의이다.

- (26) ㄱ. 그는 공부하느라 음썩달썩 않는다.
- ㄴ. 기가 질려서 몸을 음썩달썩 못한다.
- ㄷ. 여기서 음썩달썩 말고 가만히 있어.

(26)의 ‘음썩달썩’은 (25)의 ‘음썩달썩하지’에서 ‘-하지’가 줄어들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내면적으로는 (25)에서 ‘-하지’가 삭제되어 생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곧 (26)은 (25)와 의미가 같기 때문에 (25)가 (26)의 내면 구조에 해당한다.

부사는 일반적으로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에 해당하지 않지만, (26)에서 부사 ‘음썩달썩’은 필수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썩달썩’이 삭제되면 (27)과 같이 부적격한 문장이 된다.

- (27) ㄱ. *그는 공부하느라 **않**다.
 ㄴ. *기가 질려서 몸을 **못**한다.
 ㄷ. *여기서 **말**고 가만히 있어.

이와 같이 ‘옴짝달싹’은 ‘않다’, ‘못하다’, ‘말다’ 등 의존용언이 서술어로 쓰인 특수한 문장에서만 수식어로 쓰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옴짝달싹하지’였던 것에서 ‘-하지’가 생략되어 표면적으로 부사의 모습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옴짝’과 ‘달싹’이 결합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합성부사 ‘옴짝달싹’은 용법상으로 ‘달싹’의 기능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옴짝’의 기능을 계승하게 된다. 따라서 ‘옴짝달싹’은 ‘옴짝’과 쓰임이 일치한다.

‘옴짝달싹’도 문장 구성에서 생략될 수 없는 필수 요소로서 뒤에 놓이는 부정의 의존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와 긴밀 구성을 이루어 서술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존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만으로는 자립 서술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옴짝달싹’과 통사적 구성을 이루면서 자립 서술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Ⅲ. 문장 의미 유지로서의 필수 부사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사 중에 극히 일부는 수식어로 쓰인 문장에서 삭제되면 부적격한 문장이 되지는 않지만 삭제 전과 후의 문장 의미가 크게 달라져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에 해당한다. 부정문만 가려잡는 부사일지라도 ‘별로’, ‘그다지’ 등 대다수는 수식어로 쓰인 문장에서 삭제되더라도 문장 자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8) ㄱ. 날씨가 **별로** 좋지 않다.
 ㄴ. 돈이 **그다지** 많지 않다.

(28)에서 ‘별로’와 ‘그다지’는 삭제되더라도 문장의 적격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별로’나 ‘그다지’의 의미만 덜어질 뿐 변화가 없다. 곧 (29)는 (28)에서 ‘별로’와 ‘그다지만’ 삭제되었을 뿐이다.

- (29) ㄱ. 날씨가 좋지 않다.
 ㄴ. 돈이 많지 않다.

‘별로’와 ‘그다지’는 부정문만 가려잡을 뿐 문장 구성에 필수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지간한 정도로’를 뜻하는 부사 ‘여간’과 ‘이만하고 저만한 정도로, 이주’의 뜻을 지닌 부사 ‘이만저만’은 부정문에서만 수식으로 쓰일 뿐 아니라 그 부정문 구성에 따라서 필수 요소로 기능을 한다. ‘여간’이 수식어로 쓰인 문장에서 ‘여간’이 삭제되더라도 문장의 적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삭제 전과 후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삭제될 수 없다. 따라서 ‘여간’은 문장 구성의 필수 부사에 속하게 된다.

- (30) ㄱ. 오늘은 여간 바쁘지 않다.
 ㄴ. 시험이 이만저만 어렵지 않다.

(30)은 형식상으로는 부정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31)과 같이 긍정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기능은 바로 ‘여간’과 ‘이만저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31) ㄱ. [오늘은 아주 바쁘다.]
 ㄴ. [시험이 아주 어렵다.]

(30)에서 ‘여간’과 ‘이만저만’이 삭제되면 (32)와 같이 형식상으로도 부정문이고 내용상으로도 부정문으로 해석되어, (32)는 (30)과 관련 없는 문장이 된다.

- (32) ㄱ. 오늘은 출지 않다.
 ㄴ. 시험이 어렵지 않다.

따라서 (30)에서 ‘여간’과 ‘이만저만’은 단순히 수식어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삭제될 수 없는 필수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장 구성의 필수 부사에 속하게 된다. Ⅲ장에서는 문장 의미 유지로서의 필수 부사로 ‘여간’과 ‘이만저만’ 외에 ‘그렇게’를 더 들고, 이들 부사가 어떤 통사적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여간(如干)¹²⁾

‘여간’은 ‘어지간한 정도로’를 뜻하는 부사로, 부정문에서만 수식어로 쓰인다. ‘여간’은 단순 부정문은 가려잡지만 능력 부정문은 가려잡지 않는 부정법 제약 통사 부사에 해당한다. ‘여간’은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수식어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지 말-’은 가려잡지 않는다.

- (33) ㄱ. 날씨가 **여간** 따뜻하지 **않**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여간** 사랑해 주지 **않**으셨어요.

(33)의 긍정문에 해당하는 (34)가 부적격한 문장이 되는 것으로 보아 ‘여간’이 부정문에서만 수식어로 쓰이고 긍정문에서는 쓰이지 않음이 확인된다.

- (34) ㄱ. *날씨가 **여간** 따뜻하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여간** 사랑해 주셨어요.

‘여간’은 부정어 서술어 중 ‘아니다’는 가려잡지만 ‘없다’와 ‘모르다’는 가려잡지 않는다.

- (35) ㄱ. 오늘은 **여간** 추운 날씨가 **아**니다.
 ㄴ. 저 아이는 고집이 **여간** 센 게 **아**니다.

(35) ㄴ은 ‘저 아이는 고집이 여간 세지 않다’와 꼭 같은 뜻을 나타내는데, 이를 ‘여간 -게 아니다’로 변환시킨 문장으로 볼 수 있다. 곧 [여간 - 용언 여간 + -지 아니하다] 문장은 뜻 차이 없이 [여간 -게 아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36) ㄱ. 뜰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럽지 **않**다.
 → 뜰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러운 게 **아**니다.

12) ‘여간(如干)’을 강조하는 말로 ‘여간만’이 있다. ‘여간’에 ‘내기’가 결합하여 ‘어지간한 정도의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의 뜻을 지닌 명사 ‘여간내기’가 만들어졌는데, ‘여간내기’도 부정문에서 ‘아니다’를 가려잡는다.

ㄴ. 십 년 만에 죽마고우를 만나니 여간 기쁘지 않구나.

→ 십 년 만에 죽마고우를 만나니 여간 기쁜 게 아니로구나.

‘여간’이 수식어로 쓰인 (33)과 (35)는 형식적으로는 부정문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긍정문에 해당하여 (33)은 (37)로, (35)는 (38)로 해석된다.

(37) ㄱ. [날씨가 아주 따뜻하다.]

ㄴ. [할아버지는 나를 아주 사랑해 주셨어요.]

(38) ㄱ. [오늘은 아주 추운 날씨이다.]

ㄴ. [저 아이는 고집이 아주 세다.]

‘여간’이 특수한 경우에 긍정문에서도 수식어로 쓰이기도 한다. 주로 반어법을 실현하는 ‘-어야지’로 끝맺는 긍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일 수 있다.

(39) ㄱ. 할아버님 노여움이 여간 크셔야지.

ㄴ. 돈이 여간 많아야지.

(39)에서 ‘여간’은 표면상 긍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였지만, 내면적으로는 (40)과 같이 형식상 부정문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여간’이 부정문을 가려잡음이 유지된다.

(40) ㄱ. [할아버님 노여움이 여간 크지 않으시다.]

ㄴ. [돈이 여간 많지 않으시다.]

‘여간’이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사로 수식어이지만, 문장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여간’이 문장 구성에서 필수 요소가 아니라면 삭제되더라도 문장의 적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33)과 (35)에서 ‘여간’이 삭제되면 (33)과 (35)는 의미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필수 요소에 해당한다. (33)과 (35)는 형식상으로는 부정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긍정문으로 해석되는데, ‘여간’이 삭제되면 형식상으로는 내용상으로도 부정문에 속하게 된다.

2. 그렇게

‘그렇게’는 형용사 ‘그렇다’의 어간에 어미 ‘-게’가 결합하여 꼴바꿈을 한 것과 부사 파생접미사 ‘-게’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가 있다. 파생부사 ‘그렇게’는 ‘그러한 정도로’, ‘그러한 모양으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아주’ 등의 뜻을 지닌다.

- (41) ㄱ. 이 영화가 그렇게 재미있니?
 ㄴ. 왜 아이들을 그렇게 내버려둬니까?
 ㄷ. 이 영화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

(41)에서의 ‘그렇게’는 모두 파생부사로, ㄱ에서는 ‘그러한 정도로’, ㄴ에서는 ‘그러한 모양으로’, ㄷ에서는 ‘아주’의 뜻을 지닌다. ‘그러한 정도로’나 ‘그러한 모양으로’의 뜻을 지닌 ‘그렇게’는 긍정문이나 부정문을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일 수 있어 ‘부정법 제약 통사 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42) ㄱ. 이 영화가 그렇게 재미없니?
 ㄴ. 왜 아이들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41)의 ㄱ과 ㄴ은 긍정문에서, (42)의 ㄱ과 ㄴ은 부정문에서 ‘그렇게’가 수식어로 쓰였지만 모두 적격한 문장이 된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주’의 뜻을 지닌 ‘그렇게’는 부정문에서만 수식어로 쓰일 수 있으며 긍정문에 쓰이면 부적격한 문장이 되거나 적격한 문장이 되더라도 ‘아주’의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43) *이 영화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다.

(43)은 (41) ㄷ의 긍정문으로는 부적격한 문장이 된다. (43)에서 ‘그렇게’가 ‘아주’의 뜻이 아니라 ‘그러한 정도로’의 뜻인 경우에는 적격한 문장이 되지만, 부정문만 가려잡는 ‘아주’의 ‘그렇게’이기 때문에 부적격한 문장이 되었다.

‘아주’의 ‘그렇게’는 특수한 문장 구조에서 제한적으로 쓰인다. ‘-을 수가 없’이나 ‘-지가 않’ 등의 앞에서 수식어로 쓰이는 특성을 보인다.

- (44) ㄱ. 요즘 학생들이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ㄴ. 겨울밤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구나.¹³⁾

(44)는 형식상으로는 부정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강조의 의미를 지닌 긍정문으로 해석된다. (44)를 의미상 차이 없이 다시 쓰면 (45)와 같다.

- (45) ㄱ. [요즘 학생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ㄴ. [겨울밤이 아주 길더구나.]

‘아주’의 ‘그렇게’는 ‘아주’와 마찬가지로 ‘정도가 매우 높음’을 뜻하는 정도부사에 해당하며, 수식 대상도 일반 정도부사와 마찬가지로 주로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아주’의 ‘그렇게’는 문장에서 수식어에 해당하지만 문장 구성에서 필수 요소에 해당한다. (44)에서 ‘그렇게’가 삭제되면 (44)와 관련이 없는 문장 (46)이 된다.

- (46) ㄱ. 요즘 학생들이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ㄴ. 겨울밤이 길지가 않더구나.

곧 (44)는 형식상으로는 부정문이고 내용상으로는 긍정문으로 해석되지만, (46)은 형식상으로는 부정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44)에서의 ‘그렇게’는 문장 구성에 필수 요소가 된다. (44)에서 ‘그렇게’가 형식상으로는 부정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긍정문으로 해석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아주’의 ‘그렇게’는 특정의 부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여 부정법을 가려잡는 통사 부사에 해당하며, 문장 구성에서 필수 요소로, 내용상으로는 강조의 의미를 지닌 긍정문으로 해석되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

13) 이 문장은 중의성을 띠어 ‘그렇게’가 ‘그러한 정도로’의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3. 이만저만¹⁴⁾

‘이만저만’은 ‘이만하고 저만함’의 뜻을 지닌 명사와 ‘이만하고 저만한 정도로, 아주’의 뜻을 지닌 부사로 쓰인다. 명사인 ‘이만저만’은 (47)에서와 같이 부정문에서 주로 쓰여 부정법을 가려잡는 명사에 해당한다.

- (47) ㄱ. 이번 홍수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ㄴ. 추운 날씨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

명사인 ‘이만저만’은 주로 ‘아니다’가 서술어인 경우에 조사 ‘이’가 덧붙여 보어로 쓰이는 특성을 보인다.

부사인 ‘이만저만’은 주로 부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이는데, (48)과 같이 단순 부정문을 가려잡거나 부정어 중에서 ‘아니다’를 가려잡는다.¹⁵⁾

- (48) ㄱ. 요즘엔 생선이 **이만저만 비싸지 않다**.
ㄴ. 추운 날씨에 **이만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다**.

(48)의 긍정문에 해당하는 (49)가 부적격한 문장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만저만’이 부정문에서만 수식어로 쓰이고 긍정문에서는 쓰이지 않음이 확인된다.

- (49) ㄱ. *요즘엔 생선이 **이만저만** 비싸다.
ㄴ. *추운 날씨에 **이만저만** 고생하는 것이다.

‘이만저만’이 부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이면, 형식상으로는 부정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긍정문으로 해석된다. 곧 (48)은 부정문이지만 의미적으로는 (50)과 같이 긍정문으로 해석된다.

14) 작은말로 ‘요만조만’이 있다. ‘이만저만’과 용법이 같다.

15) ‘이만저만’이 ‘아니다’를 가려잡는 경우에 특수한 명사 ‘고생, 실망, 손해’ 등이 보어로 쓰일 때 ‘이만저만 -이 아니다’ 문장이 다음과 같이 적격하게 쓰인다.

(보기)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다.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다.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 (50) ㄱ. [요즘엔 생선이 아주 비싸다.]
 ㄴ. [추운 날씨에 아주 고생한다.]

(48)이 (50)과 같이 긍정의 의미로 해석되게 하는 요인은 바로 ‘이만저만’이다. (48)에서 ‘이만저만’이 삭제되면 내용상으로도 부정문으로 적격한 문장이 된다. 그러나 ‘이만저만’이 수식어로 들어감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부정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긍정문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48)에서 ‘이만저만’은 수식어일지라도 삭제될 수 없다. 삭제된다면 (48)의 뜻과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만저만’은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가 된다. ‘지 않다’를 가려잡는 ‘이만저만’ 구문은 의미상 차이 없이 ‘은 것이(게) 아니다’ 구문으로 다시 쓸 수 있다.

- (51) ㄱ. 회사 사정이 이만저만 어렵지 않다.
 → 회사 사정이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다.
 ㄴ. 요즘에는 이만저만 바쁘지 않다.
 → 요즘에는 이만저만 바쁜 게 아니다.

‘이만저만’이 특수한 문장 구조의 긍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이기도 한다. ‘어야지’ 구문인 경우 반어적 의미를 실현한다. 예컨대, ‘내가 돈이 있어야지’는 표면상으로는 긍정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내가 돈이 없다’란 반어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 ‘어야지’ 구문인 경우에 (52)에서와 같이 ‘이만저만’이 긍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일 수 있다.

- (52) ㄱ. 작아도 이만저만 작아야지.
 ㄴ. 올 겨울은 추워도 이만저만 추워야지.

(52)는 긍정문이지만 ‘이만저만’이 쓰인 부정문과 꼭 같은 의미를 나타내며, 의미상 차이 없이 (53)과 같이 부정문으로 다시 쓸 수 있다.

- (53) ㄱ. 작아도 이만저만 작지 않아.
 ㄴ. 올 겨울은 추워도 이만저만 춥지 않아.

따라서 (52)는 (53)과 의미상 같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긍정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부정문과 다를 바 없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52)에서는 ‘이만저만’이 삭제되면 (54)와 같이 부적격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만저만’은 수식성분이지만 문장 구성에 필수 요소에 해당한다.

(54) ㄱ. *작아도 작아야지.

ㄴ. *올 겨울은 추워도 추워야지.

이와 같이 부사 ‘이만저만’은 단순 부정문이나 부정어 ‘아니다’를 가려잡으며, ‘이만저만’이 수식어로 쓰인 문장에서 ‘이만저만’이 삭제되면 삭제 전과 의미가 크게 달라지거나 부적격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만저만’은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에 해당한다.

IV. 맺음말

부사 가운데 부정문만 가려잡으면서 문장 구성에 필수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꼼짝’, ‘꼼짝달짝’, ‘얼씬’, ‘옴짝’, ‘옴짝달짝’, ‘여간’, ‘그렇게’, ‘이만저만’을 선정하고, 이들 부사의 통사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꼼짝’, ‘꼼짝달짝’, ‘얼씬’, ‘옴짝’, ‘옴짝달짝’은 단순히 수식어로서의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의존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와 통사적 구성을 이루어 서술기능을 보완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데 참여한다. 이들 부사가 수식어로 쓰인 문장에서 이들 부사가 삭제되면 부적격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들 부사는 문장 구성에서 필수 보충어에 해당된다.

‘꼼짝’과 ‘꼼짝달짝’은 문장 구성에서 삭제될 수 없는 필수 요소로서, 뒤에 놓이는 부정의 의존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와 긴밀 구성을 이루어 서술기능을 보완하여 자립 서술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꼼짝’과 ‘꼼짝달짝’은 ‘않다’와의 결합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외에는 대체로 같다.

얼씬도 부정의 의존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만 가려잡으며 문장 구성에서 생략될 수 없는 필수 요소로서 뒤에 놓이는 ‘않다’, ‘못하다’, ‘말다’와 긴밀 구성을 이루어 서술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옴짝’과 ‘옴짝달짝’은 ‘않다’, ‘못하다’, ‘말다’ 등 의존용언이 서술어로 쓰인 특수한 문장에서만 수식어로 쓰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옴짝하지’와

‘옴짝달싹하지’였던 것에서 ‘하지’가 생략되어 표면적으로 부사의 모습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않다’, ‘못하다’, ‘말다’와 긴밀 구성을 이루어 서술기능을 보완하여 자립 서술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간’, ‘그렇게’, ‘이만저만’도 부정문만 가려잡으면서 단순히 수식어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삭제될 수 없는 필수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장 구성의 필수 부사에 속하게 된다.

‘여간’은 단순 부정문은 가려잡지만 능력 부정문은 가려잡지 않는 부정법 제약 통사 부사로, ‘여간’이 수식어로 쓰인 문장에서 ‘여간’이 삭제되면 의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를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에 해당된다. 주로 반어법을 실현하는 ‘-어야지’로 끝맺는 긍정문에서도 수식어로 쓰일 수 있다.

‘아주’의 뜻을 지닌 ‘그렇게’는 부정법 제약 통사 부사로서, 특수한 문장 구조인 ‘-을 수가 없’이나 ‘-지가 않’ 등의 앞에서 수식어로 쓰이는 특성을 보인다. ‘그렇게’는 문장 구성에서 필수 요소로, 내용상으로는 강조의 의미를 지닌 긍정문으로 해석되게 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만저만’은 단순 부정문이나 부정어 중에서 ‘아니다’를 가려잡는 부정법 제약 통사 부사로, ‘이만저만’이 수식어로 쓰인 문장에서 ‘이만저만’이 삭제되면 삭제 전과 의미가 크게 달라지거나 부적격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만저만’은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에 해당한다. 반어법을 실현하는 ‘-어야지’로 끝맺는 긍정문에서도 수식어로 쓰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2001.
- 금성관,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 김경훈, 『현대 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석득, 『우리말 형태론』. 탑출판사, 1992.
- 김영희, 「셈술말로서의 정도부사」. 『한글』 190, 한글학회, 1985, 133-161쪽.
- 김택구, 「우리말 부사어의 통어 기능」. 『두메 박지홍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1984, 63-86쪽.
- 남기심,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2001.
- 박선자, 『한국어 어찌말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 _____, 『한국어 어찌말의 통어의미론』. 세종출판사, 1996.
- 서장규, 「부사의 통사적 기능과 부정의 해석」. 『한글』 186, 한글학회, 1984, 73-113쪽.
- 서정수,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1994.
- _____,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손남익, 『국어 부사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5.
- _____, 「국어 부사의 수식 대상」. 『한국어학』 제4집, 한국어학회, 1996, 47-66쪽.
- _____, 「서법부사와 호응어」. 『인문학보』 제23집, 강릉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187-207쪽.
- _____, 「국어 상정부사어와 공기어 제약」. 『한국어 의미학』 3, 한국어 의미학회, 1998, 119-134쪽.
- _____, 「국어 부사어와 공기어 제약」. 『한국어학』 제9집, 한국어학회, 1999, 157-179쪽.
- 신기철·신용철 편,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1977.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편,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2001.
-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 임유종, 『한국어부사연구』. 한국문화사, 1999.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71.
-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2.
- 한길, 「정도어찌씨에 관한 의미론적 연구」. 『새국어교육』 37·38, 한국국어교육학회, 1983, 372-391쪽.
- _____, 『현대 우리말의 형태론』. 역락, 2006.
- _____, 「정도부사 ‘훨씬’, ‘가장’, ‘더/덜’의 용법」. 『인문과학연구』 제35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184-205쪽.

- ____, 「보충어를 요구하는 통사 부사의 용법」. 『인문과학연구』 제39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224-249쪽.
- ____, 『우리말 어찌씨의 짜임새 연구』. 역락, 2014.
- ____, 「문장 구성을 제약하는 통사 부사의 용법」. 『국어학과 국어교육학』, 채륜, 2015a, 205-232쪽.
- ____, 「부정문을 가려잡는 ‘도’ 결합 부사어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46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b, 147-171쪽.
- 허웅,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1999.

국 문 요약

대다수 부사는 피수식어를 의미적으로 한정하는 역할에 국한하지만 일부 부사는 문장 구성이나 문법 범주에 영향을 미친다. 문법 범주 중에 부정법에 영향을 미쳐 부정문만 가려잡는 부사가 있고, 그중에 문장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로 쓰이는 것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부정문을 가려잡되, 문장 구성 필수 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꼼짝’, ‘꼼짝달짝’, ‘얼씬’, ‘움짱’, ‘움짱달짝’, ‘여간’, ‘그렇게’, ‘이만저만’을 선정하고, 이들 부사의 통사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부정문을 가려잡는 ‘꼼짝’, ‘꼼짝달짝’, ‘얼씬’, ‘움짱’은 의존용언과 통사적 구성을 이루어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게 하는 부사들이다. 의존용언 중에 부정의 ‘않다’, ‘못하다’, ‘말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서술어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본용언 뒤에 놓여 본용언과 함께 서술기능을 수행하지만, 본용언이 놓이지 않고 이들 부사가 선행하여 서술기능을 보완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부정문을 가려잡는 ‘여간’, ‘그렇게’, ‘이만저만’은 문장 의미 유지로서의 필수 부사로, 이들 부사가 수식어로 쓰인 문장에서 삭제되면 부적격한 문장이 되지는 않지만 삭제 전과 후의 문장 의미가 크게 달라져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에 해당한다. 이들 부사는 부정문만 가려잡으면서 단순히 수식어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유지하는데 삭제될 수 없는 필수 요소에 해당한다.

투고일 2016. 3. 18.

심사일 2016. 4. 22.

게재 확정일 2016. 6. 8.

주제어(keyword) 문장 구성(sentence construction), 문법 범주(grammatical category), 부정법(negation), 필수 부사(obligatory adverb), 통사적 특성(syntactic characteristic)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the Obligatory Adverbs to Select Negative Sentences

Han, Kil

Most adverbs are restricted in roles to limit modified words semantically, but some adverbs have an influence on sentence construction and grammatical category. There are a few adverbs to select negative sentences in negation among grammatical category and to work on as the obligatory element of sentence construction. This thesis argued about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these adverbs. There are 'ggomjjak', 'eolssin', 'omjjak', 'omjjakdalssak', 'yeogan', 'geureokhe' and 'imanjeoman' in these adverbs.

'Ggomjjak', 'eolssin', 'omjjak' and 'omjjakdalssak' are the adverbs to make work on as the predicate with auxiliary verbs syntactically in negative sentences. There are negative auxiliary verbs 'antha', 'mothada' and 'malda' to make work on as the predicate with these adverbs syntactically. Generally these auxiliary verbs independently can not be worked on as the predicate in sentences, but they can be worked on as the predicate with these auxiliary verbs. That is, these auxiliary verbs preceding 'antha', 'mothada' and 'malda' fill up the function of the predicate in sentences.

'Yeogan', 'geureokhe' and 'imanjeoman' to select negative sentences are obligatory adverbs as maintenance of sentence meaning. If these adverbs are omitted in the sentences, those sentences are not ungrammatical, but the meanings of sentences before and after omitting these adverbs undergo a great change. Therefore these adverbs are the obligatory element of sentence construction without omitting in sentences.

